전북 대전환 위한 대장정 과감하게 시작하겠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한 전북'을 기치로 내걸고 치열한 선거전을 펼친 끝에 현직 도지사인 김관영 후보를 9.44%P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내발적 발전전략'과 '도민주권 도정'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며 전북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안했다. 민선 9기 전북특별자치도를 이끌어 갈 이원택 당선인을 만나 도정 운영 방향과 비전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지난 10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 마련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Q1. 먼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선 소감과 함께 도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172만 전북도민 여러분과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들의 위대한 선택에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단순히 이원택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낙후와 소외의 역성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중심에 당당히 서고자 하는 도민 모두의 간절한 염원이 모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기쁨보다는 전북의 대도약과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양어깨를 누릅니다.

선거 기간 전북 방방곡곡을 누비며 들었던 도민 여러분의 매서운 쓴소리와 현장의 간절한 눈물들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Q2. 당선인께서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한 전북'을 기치로 내걸고 강조해 오셨습니다. 민선 9기 전북도정을 어떤 핵심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계획인지 마스터플랜을 말씀해 주십시오.

- 민선 9기 도정의 나침반은 명확합니다. 바로 '실용'과 '도민 중심'입니다.

과거처럼 화려하지만 속은 빈 거창한 구호나 보여주기식 전시성 정책은 과감히 걷어내겠습니다.

오직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가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북도정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외부 의존형 구조에서 전북 내부의 내실과 역량을 키우는 자립형 경제 구조로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버려지는 사람도, 뒤처지는 지역도 없는 균형 잡힌 전북을 만드는 것이 제 최종 목표입니다.

Q3. 이번 선거는 도내 경선부터 본선에 이르기까지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도민 통합과 협치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구상은 무엇입니까?

- 치열했던 축제의 장이자 경쟁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전북의 미래라는 큰 틀에서 하나로 뭉쳐야 할 전력 질주의 시간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저를 지지하셨던 분들은 물론, 다른 후보를 선택하셨던 분들까지도 모두 전북의 발전과 안녕을 걱정하신 자랑스러운 우리의 도민들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시·군 간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물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능력 중심의 탕평과 소통을 실천하겠습니다.

도정의 문을 활짝 열어 야당과 시민사회, 지역 언론의 목소리까지 가감 없이 수렴하겠습니다.

172만 도민 모두의 손을 맞잡고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통합과 상생의 도정'을 펴나가겠습니다. 통합된 전북의 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입니다.

Q4. 당선인께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총 2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일각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앵커기업 유치 전략은 무엇입니까?

- 지금 전북에는 100년 만에 찾아온 거대한 세계적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전주 금융도시 조성 의지를 재확인하셨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역시 새만금 투자를 직접 거론하는 등 대전환의 모멘텀이 마련됐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듯, 이 기회를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낚아채야 합니다.

새만금이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전력 인프라와 광활한 부지 경쟁력을 무기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은 물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전방위로 공략하겠습니다.

새만금 일대에 300만 평 규모의 'AI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속도감 있게 조성해 HBM, 첨단 패키징, AI 반도체 생산 시설을 한곳에 집적화하겠습니다.

중앙정부 및 글로벌 기업과의 강력한 탑다운 협상력을 발휘해 말에 그치지 않는 확실한 제도적 로드맵과 실질적인 투자 유치 성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Q5. 민선 9기 도정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자 철학으로 '도민 주권 도정'을 제시하셨습니다. 당선인께서 정의하시는 도민 주권 도정의 본질은 무엇이며, 이를 도정 운영 체계에서 어떻게 구현할 계획이십니까?

- 제가 생각하는 '도민 주권 도정'이란 도민이 단순히 선거 때만 표를 던지는 주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정책의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예산 편성, 집행, 최종 평가에 이르기까지 도정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에 출범한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도민주권 분과'를 전면에 배치해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향후 도민들이 일상적으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도민들이 직접 숙의하고 토론하는 도민 공론화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도민의 목소리가 곧 전북의 법과 정책이 되는 상시적 참여 구조를 제도화해, 172만 도민이 진짜 주권자로서 권리를 누리는 진정한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활짝 열어젖히겠습니다.

민선9기 도정은 '실용 · 도민'
도민 공론화 제도 활성화
전북성장공사, 도민 자산
지키기 위한 핵심 경제 보루
내발적 발전 전략 통해
자립형 경제 자족도시 완성

Q6. 공약 가운데 전북의 독자적인 개발 권한을 행사할 '전북성장공사 설립'에 대한 지역 정가와 경제계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설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이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그동안 전북의 광활한 자산과 천혜의 환경을 활용한 대규모 개발 사업의 이익이 정작 전북도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외부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습니다.

'전북성장공사'는 이러한 개발 이익의 역외 유출을 막고, 도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핵심 경제 보루입니다. 공사가 설립되면 새만금의 대규모 개발 사업은 물론,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시·군 맞춤형 도시재생 및 환경 개선 등 공공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를 전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외부 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주도적인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보된 공공 수익은 외부로 나가지 않고 전액 도민의 복지 향상,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자원으로 재투자되어 전북 경제 성장의 강력하고 영속적인 엔진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Q7.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과 이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는 전북이 안고 있는 가장 뼈아픈 과제입니다. 청년들이 타지로 떠나지 않고 전북에 정착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어떤 혁신적인 청년 정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 지금까지의 청년 정책은 청년들에게 일시적으로 지원금 몇 푼 쥐여주는 단기 처방과 땜질식 복지에 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떠나는 청년들의 발길을 돌릴 수 없습니다.

민선 9기는 주거와 교통, 창업 지원, 문화적 만족도, 그리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까지 청년의 삶 전체를 촘촘하게 하나로 묶는 강력한 '청년 자립 패키지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북에서 나고 자란 인재들이 교육을 받고 고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고향에서 과감히 도전하고 대기업 부럽지 않은 유망 강소기업에서 꿈을 펼치며 가정을 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 주거 자금 지원 확대와 청년 창업 펀드 조성을 통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전북을 청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Q8. 당선인께서 전북 경제의 돌파구로 강조하고 계시는 '내발적 발전 전략'의 구체적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전북의 미래 경제 지도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쉽게 비유하자면, 외부에서 거대한 다 자란 나무를 큰돈 들여 옮겨 심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북의 흙과 기후에 맞는 토착 씨앗을 뿌리고 키워 울창한 숲을 이루게 하는 전략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기업 유치에만 매달렸지만, 정작 전북의 경제 체질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의 단순한 하청 기지에 머무는 임가공 경제 구조를 깨부수고, 전북에서 성장한 향토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대한민국 핵심 공급망을 책임지는 당당한 강소기업,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도청의 모든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이들 토착 기업의 기술 개발과 마케팅, 인재 매칭에 밀착 지원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안의 자원과 인재, 기술을 융합해 외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립형 경제 자족도시 전북'을 완성하겠습니다.

Q9. 마지막으로 본지 전주매일신문 독자 여러분과 172만 전북도민께 새해 및 도정 출범을 앞두고 전하고 싶은 간절한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전주매일신문 독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기와 기회가 격렬하게 공존하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기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패배주의에서 벗어난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실행력입니다.

172만 도민의 위대한 저력과 지혜를 하나로 모은다면 우리는 그 어떤 파고도 넘을 수 있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한 전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절대 잊지 않고, 민선 9기 전북도정의 출범과 동시에 전북의 대전환을 위한 대장정을 과감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도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며 제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위대한 전북 특별시대를 향한 힘찬 여정에 도민 여러분께서 든든한 동반자로서 믿고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만호 기자

이원택 당선인이 걸어온 길

김제의 시골 소년, 전북자치도 수장 되다

대학 졸업 후 시민운동가로 활동
전주시의원 활동으로 자치발전 힘 써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
전북도 정무부지사 등 거치며
정무 감각 · 정책 추진력 인정받아
국회의원 된 뒤 농촌 목소리 대변
현장에서 답 찾는 정치 여정 걸어
전북 대도약 현실화에 관심 집중

전북 김제의 평범한 농촌마을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마침내 172만 전북특별자치도의 수장이 됐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의 삶은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지역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정치인의 성장 기록이라 할 만하다.

1969년 2월 5일 전북 김제군 백구면에서 태어난 이 당선인은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몸소 체험하며 성장했다. 치문국민학교와 이리중학교, 남성고등학교를 거쳐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업공학과를 졸업한 그는 대학 학창 시절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다.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학생운동을 하다 두 차례나 교도소 수용생활을 통해 3년여의 기간 동안 사회와 단절된 곳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올곧게 생활했다.

교도소 수용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안위보다는 동지와 선후배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 진정한 리더의 진면목을 보인바 있다.

학생운동에 참여하면서부터 지역사회와 공동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후 대학교를 어렵게 졸업하고 시민운동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그는 시민행동 21 사무처장을 맡아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헌신했다.

이후 열린우리당 전북도당 청년2국장으로 정치에 입문하면서 본격적인 공직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 당선인의 정치 인생은 현장 중심의 실무 경험으로 채워져 있다. 전주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시민들의 삶 속에서 답을 찾는 생활 정치를 실천했고,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 복지와 지방자치 발전에 힘을 쏟았다.

특히 그는 송하진 전 전주시장과 전북도지사의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지방행정의 최일선을 경험했다.

이후 전북도청 대외협력국장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균형발전비서관실과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

청와대 경험은 그의 정치 철학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신념은 이후 그의 정치 활동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가 됐다.

2019년 제18대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로 임명된 그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오가며 전북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정무 감각과 정책 추진력을 인정받으며 전북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제시·부안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중앙 정치 무대에 진출한 그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전국 농어민위원장 등을 맡아 농업과 농촌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이어 제22대 국회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한 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농해수 정조위원장을 맡아 농어업 정책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

국회의원 시절 그는 농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 국가균형발전 전략 마련에 집중하며 전북 발전의 청사진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으로서 지역 정치권의 통합과 협력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정치 여정은 화려한 수사보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천의 연속이었다. 농민의 손을 잡고, 어민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과 소상공인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지역 발전의 해법을 모색해 왔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 제37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당선된 이원택 당선인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전북 대도약'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며 재생에너지, 피지컬 AI, 첨단산업 육성, 내발적 발전 전략, 도민 주권 강화를 통한 새로운 전북 시대를 약속했다.

김제의 농촌 소년에서 학생운동가로 시민운동가로 지방의원에서 행정가로 변신을 거듭하여 청와대 행정관, 국회의원,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의 역사였다.

이 당선인의 부인인 이은주 전북도청 자치제도과장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만나 한 평생 어려움 속에서도 도움을 주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평생을 함께한 동지이기도 하다.

전북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출발선에 선 이원택 당선인. 그가 꿈꾸는 '전북 대도약'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